

라파엘 소식



2015. 11 제233호

발행인 | 안규리 편집 | 라파엘클리닉 사무국 주소 | (028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7
전화 | 02-763-7595, 764-7595 팩스 | 02-741-0767 이메일 | 97raphael@hanmail.net 홈페이지 | www.raphael.or.kr

멘토 이야기

가을에 느끼는 생명력!



» 허석훈 루카 영성위원장 |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에 생명력이라니 어불성설 같지요? 수줍게 채색된 낙엽이 흩날리는 시간 속을 만끽하다 보니 죽음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안에서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생명력의 한 자락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평면적 시선을 멈추어 세우면, 잠재했던 입체적 시야가 같은 세상을 다르게 조망합니다. 세상엔 시선을 끌어 올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이해는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기보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관통하여 직관할 수 있는 시선 안에서 얻어지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건대, 땅바닥을 뒹구는 낙엽들이 어찌하면 그 나무의 생명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생명력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사랑을 올바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릇했던 잎의 변색과 더불어 자신을 내

려놓는 의식(儀式)에 대해 과학은 '나무가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 체내 수분을 낮추는 생명의 몸부림'이라 알려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의 생명활동이지요. 평면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고서 세상을 보노라면, 세상은 생(生)의 역동성으로 가득 들어 차 있습니다. 만물 안에 약진하는 생명력을 볼 수 없음은, 현대인의 무디어진 마음과 평면적 사유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은 시선은 생명력이 꿈틀대는 것들마저도 '도구화'하거나, '사물화(事物化)'하는 우(愚)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파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작은 몸짓에서도 하느님의 기운과 약진하는 생명력을 느낍니다. 그 기운이 미력일지라도 병고에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운을 받은 그들도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서 그 따뜻한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

01 멘토 이야기
05 차 한잔의 여유

02 박용우의 건강칼럼
06 라파엘센터소식

03 국내소식
07 라파엘봉사자

04 해외소식
08 후원소식



장을 똑똑하게 유지시키는 건강법

» 박용우 라파엘클리닉 실행위원 | 의사, 리셋클리닉 대표원장

지난 칼럼에서 건강을 챙기려면 장이 계속 똑똑한 상태로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장내세균인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생제입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지, 제왕절개분만으로 태어났는지……. 우리의 건강은 여기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태아의 장은 처음엔 무균상태입니다. 엄마의 산도를 거치면서 엄마 질 속에 있는 유산균이 입을 통해 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장내세균과의 첫 만남입니다. 하지만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이러한 '유산균 샤워'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장내세균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이 천식이나 알레르기질환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감기도 자주 걸리고 중이염이나 축농증도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면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되니 장내환경에서 보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두 번째는 설탕, 흰 밀가루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줄어들면 곰팡이 같은 유해미생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곰팡이는 당분을 좋아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곰팡이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분함량이 많은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곰팡이나 유해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설탕과 흰 밀가루 같은 음식을 가급적 피하면서 유익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어야 예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했습니다. 장에는 뇌나 척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직접 장운동에 관여하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뇌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그대로 장의 신경에 전달되어 장운동이 떨어지고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장내환

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과민성장증후군을 장의 우울증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처방받은 것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투여한 가축이나 양식 생선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에서 양날의 칼입니다. 나쁜 박테리아를 없애려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항생제는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까지 없애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감기증세가 있거나 열이 나면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서 항생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오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질환을 달고 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생제 처방이 꼭 필요한 병이라면 반드시 복용해야 하지만 항생제의 남용은 항생제 내성 뿐 아니라 장내환경을 파괴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범람으로 지나친 설탕의 섭취 역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병 덩어리로 자라는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내환경을 재건시키려면 항생제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정제가공식품을 가급적 피하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생양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생양배추의 영양성분을 내 몸이 얻어간다는 생각보다는 장내에 공생하고 있는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생각으로 말입니다.

● 국내소식

▾ 라파엘 홍천 이동클리닉



11월 1일, 홍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라파엘 홍천 이동클리닉이 열렸습니다.

이번 이동클리닉은 김창덕 진료위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8명,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봉사 동아리를 포함해 총 56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진료과목으로 내과, 치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청소년과가 열렸으며,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로 결핵 검진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10대 이하의 자녀와 40대 이하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진료를 받았고, 8개 과목에 대해 총 144명(진료건수 20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진료 이외에도 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라파엘 건강책자 '내건강지킴이(고혈압, 고지혈증)와 치약칫솔세트'를 배부하였습니다.

윤성일 회장(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 정형외과의)은 "라파엘 이동클리닉이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의 취약한 건강관리에 대한 재고와 사회적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진료를 함께 준비해주신 홍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한결핵협회 강원지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라파엘 홍천 이동클리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화생명이 후원하였습니다.

백가현 사진작가가 담은 라파엘센터 진료소



+ 의료지원소식



라파엘센터 (중국/1979년/35세/여): 내과진료비, 232,700원
진료소 (몽골/1975년/40세/여): 유방암, 외과수술비, 4,282,040원

10월 지원금은 총 4,514,740원입니다.

○ 해외소식

**몽골 의료진 역량강화 사업 : 진료시스템 개선 세미나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 Mongolia) Project**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 CHD(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1층 회의실에서 가정병원 의료진 54명을 대상으로 CPD 강사진 7명이 진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팀워크, 환자 교육,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스트레스 및 시간 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임상 분야로는 심전도 및 X-ray 판독, 진단검사,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자 Nyamsuren은 “이번 강의 세미나의 주제 선정이 매우 좋았으며, 특히 심전도나 진단검사와 같은 의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제의 강의를 이루어져 도움이 되었다. 또한, 마네킹을 이용한 현장 실습이 병행되어 새롭고 유익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미얀마 의료진 초청연수 현황

성명	소속	연수 병원	연수 과목	지도 교수	연수기간
Dr. Htar Kyi Swe	Mandalay General Hospital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양재석	9.14-12.05
Dr. May Thwe Lin	University Medicine 1, Yangon	고대안암병원	병리과	원남희	9.14-11.30
Dr. Mu Mu Naing	Mandalay General Hospital	고대안암병원	마취과	신혜원	9.14-10.09
Dr. Sai Aung Nyunt Oo	Yangon Specialty Hospital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	서경석, 이광웅	9.14-11.14
Dr. Tin Maung Lin	Mandalay General Hospital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비뇨기과	하종원, 민상일 정창욱	9.14-12.05
Nurse Tin Nilar Soe	Mandalay General Hospital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민상일	9.14-10.09

2015 라파엘 송년의 밤

하모니 & 라파엘

2015.12.3. 목 라파엘센터



18시 미사
주례: 허석훈 루카 영성위원장



19시
만찬



19시 30분
봉사자 공연

라파엘 송년의 밤, 함께 만들어 주세요~!

- * 공연 재능나눔이 가능하신 분들,
- * 송년의 밤 준비에 도움주실 분들,
- * 송년의 밤 기념선물을 후원하실 분들,
- * 덧붙여 크리스마스 장식을 기증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국(02-762-75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신청 및 후원 문의

02)762-7595 또는 97raphael@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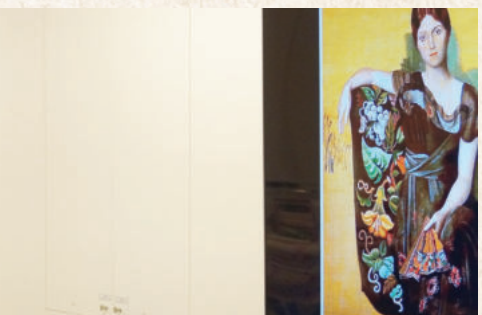
라파엘클리닉
Raphael Clinic



사진으로 만나는 라파엘센터



1. 뮤직에이드 진료소 음악회
(10/4, 일, 라파엘센터)
2. 물리치료
(10/11, 일, 동두천분소)
3.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두 번째 부인'(10/12, 월, 라파엘센터)



라파엘 문화강좌 12,1월 강의 일정

12/14(월) 19시,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 '비엔나 이야기'

12/15(화) 19시, 정현채 교수의 '죽음학' 강의 13강 - '자살에 대한 담론 - 자살을 하면 왜 안 되는가?(1)'

1/19(화) 19시, 정현채 교수의 '죽음학' 강의 종강 - '자살에 대한 담론 - 자살을 하면 왜 안 되는가?(2)'

‘좋은 죽음’에 대하여

» 정현채 교수 |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현채 교수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주제로 2014년 11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총 14강의 ‘죽음학’ 강의를 라파엘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죽음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하고 다루기 꺼려하는 주제인 ‘죽음’에 대해 말함으로써 삶의 유한성과 예측 불허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죽음학’이란 무엇인가요?

수년전 어느 일간 신문 기사에 의하면 어느 재벌 그룹의 명예 회장이 고령의 나이에 임종이 임박해 오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비서들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후속기사가 없어서 이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좋은 죽음을 맞이 위해 평소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죽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해를 넘기게 돼 장장 3년에 걸쳐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생략하시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보람 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주듯이 값지게 쓰인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준다”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임종을 많이 지켜본 어느 완화의료전문의는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손꼽았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용서하고 용서를 받기. 작별인사를 잘 남기기.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좋은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학’을 배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갖는 감정은 무관심과 부정(denial), 외면 그리고 혐오입니다. 사실은 건강할 때 유언장을 써 보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평소 이런 얘기를 하면 “재수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 주위에서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 하게 돼 수십 년간 훌륭한 삶을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주위에 비일비재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고 좋은 죽음을 맞이 위해서는 죽음을 직시하고 자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선생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화 “이키루”에 나오는 위암말기의 주인공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어렵게 추진해 나가지만 주위의 냉대와 푸대접에 시달리자 밀의 직원이 “사람들이 밉지도 않느냐?”라고 하자 “나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네. 그럴 시간이 없어”라고 대답합니다. 문득 퇴근길 붉게 물든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없구나”라면서 발길을 재촉합니다.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삶의 유한성을 매일같이 깨달으면서 말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파엘에서의 14회 강의가 끝나면 한 달 쉬었다가 내년 3월부터 한림대 생사학 대학원 과정을 맡습니다. 앞으로 죽음학 강의 콘텐츠 보완할 예정으로 “사별과 애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죽음학”이라는 내용의 강의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나 늙고 병들며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새벽에 수영을 한 지 8년이 돼 가는데 물속에서 제가 누리는 여러 기적을 상기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기적. 두 다리로 걷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기적. 정상적인 항문으로 매일 배변 할 수 있는 기적. 딸꾹질로 고생하지 않는 기적. 그리고 밤사이 돌연사를 하지 않아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는 기쁨을 떠 올립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진료에 수고해 주신 진료부와 진행부

진료부		진행부	
내과	김 정 김명주 김홍빈 박승은 박지명 박지애 백도명 안홍근 양지현 유민아 이유라 이재형 이희석 조재연 차란희 최진호 최혁순 홍석근	총 괄	류승걸 박인혁
		미사집전	김명중 허석훈
가정의학과	민성준 오범조 오형석 이가혜 조은미 홍두루미	가정의학과 안내	박진호 이민기 이지원
외과	박경식 배재문 정은주	접수	강현정 고은애 공상훈 김대일 김락준 김복 김윤재 김지현 김희수 민성재 박현진 서민호 송승은 신아영 양세라 여현진 연일 이래화 이상민 이우림 이혜영 장정원 정주원 최하연 최하연 최현운 탁혜숙 한상갑 현지수 홍미리
정신건강의학과	이원준 이준희	내과안내	강지민 고승연 구정명 권예희 김매화 김유훈 김윤재 김정운 남푸르메 노성현 노수호 문혜연 박승은 박재석 송규영 여현진 오다혜 오유진 유현규 이승원 이영임 이태희 정준교 조성현 조현진 하준호 한지연 허지환 황 현
비뇨기과	강민용 이학민	외과안내	고승연 구정명 권새힘 김기훈 김상윤 김성민 김용완 김민현 노유진 박문영 박준하 박해선 손교민 송교민 송규영 안수아 염태웅 우민우 윤지혜 이경연 이은별 이혜나 정진아 채유진 최해주 하조현 황지영
신경과	박혜영 왕민정 이효은 임준성	산부인과안내	권효은 김채아 김초영 김하라 박종옥 서지민 양영실 유지영 윤아영 이계숙 장은비 최윤정 한순자
영상의학과	신수미 주이진 천정은 최자영	영상의학과안내	박재석
피부과	도은진 박정태 신지연 어수동	치과안내	권술이 김가윤 김나현 김낙균 김민식 김원희 김정화 김지우 김진아 김하연 김현수 김희진 노향주 문선호 문유빈 박서영 박지은 박하영 서유라 신 술 안홍경 양희선 윤희경 이동은 이선주 이소정 이아름 이영남 이영란 이원아 정수빈 정지혜 정희주 조아름 최윤서 최은하 한준영 한혜린 홍초롱 황다빈 황희경
이비인후과	김만수 김창희 박윤석 신현우	진단검사안내	강민정 김가영 김경훈 김상운 김성훈 김영대 김지선 김현준 김효정 박기태 박 동현 박신영 배기덕 신동률 유현석 이수현 이영준 이인한 임호영 정익선 정 지은 표수연 홍주연
안과	김미금 박성희 신기철 최혜선	약 제 부	강주영 강희원 고정화 각지수 구영우 권희정 금동윤 김가영 김다솔 김다훈 김도훈 김민정 김서라 김세영 김세영 김수희 김승범 김영찬 김우진 김은희 김진디 김정민 김주영 김지현 김하늬 김현숙 김현아 김현지 류진선 문정인 박다원 박민경 박솔아 박심은 박인아 박주원 박준오 박진우 박효숙 변재성 서민구 서지원 선화경 신진아 안정민 양성진 양혜심 염희경 오 솔 오예은 오은민 왕희균 유희민 이미선 이석준 이영철 이윤지 이진아 이채린 이희선 장문정 정소현 정우형 정은소 조예담 조현정 조현준 차재현 최성환 최수련 최수영 최영은 최용훈 최현범 최형민 한슬기 한지은 한혜인 하은선 현재협 홍신영 황원대 황원태
신경외과	문창택 박동선 변준호 이재혁	약 배 부	김은경 박신영 박혜진 배지훈 서민호 윤준식 이석창 이영희 이유민 장인경 전혜수 정우형
정형외과	박건우 박인웅 오세봉 이동오	복약지도	강현숙 김남희 김성화 김재희 서병화 서지원 신진아 안수민 윤혜승 이은영 이진솔 임아현 조영리
재활의학과	김용미 신성봉 이혜연 정윤석	타병원 의뢰 안내	권윤정 김기훈 김명희 김우재 김우중 김이슬 김정래 김창유 김한나 김형근 문호정 박주원 박태훈 변지석 손선화 양승연 유승재 이다영 이상민 이지원 이혜영 임현수 전예나 정소진 조윤지
마취통증의학과	이종혁 주은영	당뇨교육	고영상 박미선 박미선 오선주 이정은 이지혜 장현진
산부인과	이선주 전세정 정현훈 주창우 최안나 추성일	환 경	서울대학교병원환경팀 대치2동성당래지오팀 대우증권환경팀 한영회계법인환경팀 문정2동성당래지오팀
치과	곽난희 김선희 김은기 김훈재 문상운 박재홍 오주호 유효정 이귀리 이기정 이명자 이병화 이상엽 이연수 이태윤 진소정 하수용	나 눔 터	김재현 김태영 박혜선 한도윤
당뇨	민경완	한글교육	가톨릭초등학교교사회 고두리고두리
진단검사 (간호사/임상병리사)	박순화	동두천진료소	권계형 권진영 김기환 김낙훈 김미애 김민지 김민철 김보경 김영선 김유리 김유환 김진 김진영 김창민 김형진 나예경 맹일호 문수현 박미선 박재연 박재열 배정은 서민지 서수희 손도는 신지수 엄윤빈 오찬경 유승연 유은정 윤지선 이광설 이상기 이수진 이연지 이우진 이정민 이정훈 이지원 이지현 이하나 이혜운 임미옥 전명우 정유진 조민우 조성대 주성배 차지연 채현기 최다빈 최현정 한미연 한사용 한호정 홍성휘 홍수연 홍순식
동두천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	김창인	환자안내	강승혁 권윤정 김기훈 김명희 김민주 김우재 김우정 김우중 김이슬 김정래 김창유 김한나 김형근 문호정 박주원 박태훈 변지석 손선화 양승연 유승재 이 다영 이래화 이민영 이상민 이지원 이혜영 임현수 전예나 정소진 조윤지 허지
약제부 (약사)	김경자 손윤아 심정섭 심희진 조현무	법률상담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복약지도 (간호사/약사)	강현숙	사무국 봉사	곽순진 신정균 이경정 최복섭 천주교양구정성당래지오
타병원 의뢰 (의사/간호사)	고정희 권종선 김선화 김은미 김은희 김인선 김지혜 김현진 송미라 조병제 조영순 조윤지 황희경	전체진행	박인혁 전 온 정지정 조한걸
실행위원	권순익 송병호 팽진철		

2015년 10월(1일 ~ 31일)의 라파엘 천사입니다.

항상 라파엘과 함께 해 주신 후원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파엘클리닉

개인후원

- 고재성 강금례 강봉자 강애란 강은미 강은형 강정희 강태환 강효경 강희경 고민관 곽성민
곽순진 권성연 권승하 권승화 권오기 권정희 권준수 김정길 김경미 김경업 김광두 김귀자
김기하 김기환 김나영 김남현 김담희 김대욱 김동률 김두레 김란 김명석 김명숙 김무겸
김미승 김미향 김미혜 김민아 김병석 김보경 김상정 김선덕 김성미 김세종 김수암 김수연
김수진 김연동 김영국 김영미 김영숙 김영순 김영재 김영주 김영희 김옥량 김왕울 김용은
김용호 김옥성 김원희 김유경 김유숙 김의태 김인혜 김재희 김전 김정옥 김정자 김정희
김주영 김주현 김중근 김지엽 김진순 김창경 김청덕 김태민 김태형 김파라 김하진 김학성
김해주 김행기 김현철 김형태 김혜자 김희철 김홍빈 김희동 김희수 김희정 나명훈 나승규
남맹동 남상호 남숙이 노진희 단팔권 마대중 마송희 마지원 문덕자 문미희 문석란 문종열
민경완 민병덕 박건우 박경수 박기호 박대연 박명희 박미애 박미영 박상규 박선영 박소연
박소정 박승완 박영배 박용현 박용화 박유호 박유희 박은선 박재홍 박정숙 박주영 박지남
박지영 박지호 박찬익 박찬일 박태곤 박해심 박향화 박화국 박희규 방향남 방효선 배성진
배재문 배기은 백성호 백인하 백재승 변정익 사공석진 서일래 선호숙 설영기 손대원 손말희
손정희 손해정 손혜경 송순자 송여주 송은숙 송재성 송지영 송진숙 송현범 신동욱 신동학
신민정 신인철 신진균 신탁식 신현숙 심영수 안미혜 안중철 안치석 양계정 양영실 양재혁
엄애리 엄영근 엄익부 엄기철 엄우순 엄현순 오명주 오병오 오병오 오세란 오세열 오세준
오정성 오정택 오준영 오지영 오지현 오지현 오한국 오한옥 오혜숙 왕혜숙 원영신 원종태
위봉애 유경춘 유동원 유동희 유병란 유승주 유시국 유영석 유재호 유혜경 윤규옥 윤문자
윤미순 윤병우 윤병철 윤장삼 윤정목 윤혜리 이경정 이공필 이기연 이명순 이명자 이민혁
이병희 이부영 이상백 이석기 이선민 이선주 이성근 이소영 이수정 이숙희 이순아 이승은
이승연 이영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예성 이요래 이윤희 이유경 이은숙 이은우 이의태
이인재 이재광 이재용 이재희 이정숙 이정완 이주식 이준호 이지안 이지연 이지은 이지혜
이재혁 이태림 이필순 이현석 이현숙 이현주 이혜승 이홍성 이희우 임미향 임승평 임은정
임태환 장기현 장민 장수홍 장상아 장승혜 장영숙 장운석 장인진 장정인 장현아 전병준
전석구 전윤희 전정희 전준희 정석모 정순은 정순희 정영숙 정영진 정옥희 정재식 정정례
정태운 정해남 정현규 정혜경 정희정 정희선 조광희 조문준 조상현 조석명 조수현 조아현
조이현 조해숙 조현민 조혜경 조혜숙 주미숙 주선경 주희숙 진순영 진양우 최광철 최금순
최남식 최복섭 최선경 최선자 최영희 최웅 최윤라 최인호 최자영 최정연 최정옥 최종률
최종식 최황 추초자 한영아 한만우 한민규 한연주 한정희 한지선 함덕영 함숙 함원섭
허미선 허비아 현은영 홍강의 홍경란 홍명숙 홍미선 홍석근 홍석란 홍인식 홍주의 홍진경
홍혜련 황석근 황세영 황순애 황용순 황윤주 황인규 황자영 황현숙

단체후원

- (주)천지산업 (주)피제이전자 (주)화공실업 가톨릭운전기기사사도회
김남호복지재단 녹십자의료재단 담우물산 부페아리스
분당소망교회 코람코자산신탁 한국교와화교기원 한영회계법인
해피빈

약품후원

- 국제보건의료재단 롯데복지재단
사노파-아벤티스코리아 삼진제약
일동제약 전로원내과

지정후원

- 대우증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한화생명보험(주)

후원안내

라파엘 후원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9-092711
에 금 주 : (사)라파엘인터내셔널
문의전화 : 02-762-7595



라파엘인터내셔널

개인후원

- 강남구 강동현 강미령 강민진 강복희 강승우 강옥선 강윤아 강인조 강임주 강정남 강지원
강향숙 강태택 고기도 고기판 고명호 고영초 고재성 고정원 고정근 곽도희 곽인진
권수지 권순억 권순호 권용우 권인희 권정현 권정준 권혜철 김경덕 김경숙 김경아 김경택
김공경 김공옥 김귀자 김규복 김기정 김길원 김길자 김돈규 김명열 김문재 김미경 김미금
김미순 김미정 김민정 김병호 김보민 김봉애 김봉자 김상호 김선주 김성봉 김성심 김성우
김세경 김수연 김수연 김수열 김수화 김순녀 김순남 김순심 김순옥 김신영 김연정 김연주
김영순 김영순 김영재 김용철 김용준 김용철 김유택 김유리 김유리 김유정 김은주 김인애
김정문 김정식 김정아 김재애 김정원 김정준 김정환 김정희 김종욱 김종의 김종철 김중현
김주복 김준진 김지양 김지현 김지희 김진자 김창민 김철선 김현기 김현수 김현숙 김현진
김희철 김희완 김희준 김희수 김희숙 남기미 남정우 노준화 노태술 노현희 노희철 라소영
류미연 류성경 명현식 문금주 문복순 문장권 문재현 민경철 민도배 민순례 민찬근 박건태
박경란 박관용 박금보래 박대열 박래연 박명숙 박미선 박복순 박성보 박성희 박세근 박영민
박영자 박영재 박영준 박영화 박옥희 박장호 박정자 박정희 박준오 박해인 박현숙 박훈영
방승용 방영미 방효준 배성희 백수현 백운철 백지원 백해경 백훈자 변승혜 서병우 서승민
설진선 설진우 손대원 손병환 손정화 송민중 송영주 송정희 송준석 송현숙 신노미 신승원
신문근 심용진 심재민 심현옥 심혜정 안남득 안봉순 안석찬 안성훈 안소은 안중숙 안중욱
안중원 안종진 안홍률 안황순 양수영 양재남 엄대용 엄주영 엄종식 오동석 오문성 오수예
오종렬 우상숙 우승원 우연호 우인성 원용규 유기림 유동원 유동현 유순희 유재현 유진우
윤두희 윤상경 윤영옥 윤이정 윤정옥 윤정화 윤찬기 윤현기 이상선 이정란 이경란 이경희
이계설 이광숙 이규상 이금실 이기복 이기선 이기호 이길수 이대희 이도행 이명준 이미애
이민정 이삼기 이삼아 이상형 이선용 이성란 이소영 이연희 이영순 이영일 이옥경 이옥훈
이왕석 이우영 이용철 이윤미 이은숙 이은정 이인성 이재룡 이재섭 이재인 이재훈 이진경
이정미 이정우 이정은 이정인 이정자 이정희 이종찬 이준재 임수정 임승옥 임안식
이진서 이현심 이현희 이홍식 임금옥 임미정 임보현 임부열 임세영 임수정 임승옥 임안식
임익진 임재현 임정근 임정순 임재균 임철수 장은석 장형욱 전가은 전동원 전란혜 전세은
전수정 전 운 전의재 전준관 전준수 전화자 정구숙 정도교 정명관 정우정 차영은 차창일 차혜정
최성도 최지영 최건주 최공선 최국화 최두성 최민용 최순옥 최순철 최영아 최은옥 최인정
최재경 최진이 최형선 최혜수 최효용 하정은 하희옥 한미옥 한오수 한제일 한정옥 함경화
황인우 황주연 황지영 황지유 황지희 황희진

개인후원 2회 납부

- 강윤하 권도선 김명기 김병규 김선미 김성정 김수현 김신애 김영술 김우현 김용한 김우영
김재우 김진철 김춘석 김효순 노무중 노정우 노희양 박기연 박동진 박미숙 박지혜 박향숙
방기태 서은옥 서정훈 손환철 신건호 신철 안규백 안균 안성용 안재현 양승희 양원보
양창수 오국환 오상호 오혁진 오혜경 유석현 윤병재 윤정호 이규연 이문교 이병건 이성민
이수정 이재현 이태수 이택하 이현심 이현주 이영인 장보일 장은희 장근석 정규규 정도현
정봉태 정우경 정진택 최복현 한명은 한승환 홍영태 황보현우

개인후원 3회 납부

- 허석훈

개인후원 4회 납부

- 김 전 안규리

신규개인후원

- 곽순진 구태연 김명준 김문숙 김미식 김미애 김수현 김인순 김정희 김중복 김준갑 김희경
박소민 박순희 박영하 박필호 박한용 백승모 변은희 서수현 성일용 송애랑 송희정 안경선
오광수 오세련 오은지 이말순 이분매 이연주 이영식 이원재 이은지 이인숙 이정화 이하정
이현중 장덕환 정연화 조한범 주경돈 최기록 함방자 칸무하마드칸 TSOGBDRAKHBOD

단체후원

- (사)은빛날개후원회 (주)비토피아 (주)아웃도어파크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주)유라동상 (주)인터비스시스템
(주)한테크 가락전자(주) 광명산업(주)
돈보스교우지원 씨에스우드(주) 요셉의원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절두산순교성지 천주교 사초동성당
천주교 압구정례 가당

단체후원 2회납부

- 캐녹스사운드

신규 단체후원

- 가톨릭여성연합 바자회이사헌금 바자회판매후원
가톨릭초등학교교사회(가초) 웨어룸-류화주 목동아리스
문화강좌이명 성북모꼬지이명 성북문화재단
청소년국조동부

지정후원

- 안동혁프란치스코-바보의나눔 기획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KOICA-서울대산학협력단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MS 계좌이체 출금일을 25일 이후로 신청한 경우, 라파엘로의 입금이 다음 달 초에 이루어져 당일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분은 다음 달 소식지에 2회 납부 후원자로 기록됩니다.